

추석 다가오는데... 부양기피에 우는 사람들

자식과 연락 두절·이혼 등 가족해체로 힘겨운 삶

“부양 외면에 도움받고 싶어” 광주 울들어 1136건 신청

소명서·통장내역 등 제출 요구에 또한번의 아픔 우려도

#1. A(43)씨는 지난 2013년 남편(48)과 이혼했다. 도박에 빠진 남편이 생활비를 가져가고,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남겨둔 재산마저 탕진하고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는 폭언까지 일삼으며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일하며 혼자서 힘겹게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2. B(94)씨는 지난 2012년 아내와 사별한 뒤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폭력적인 큰 아들(60)은 10년 전부터 연락이 없고, 둘째 아들(53)은 15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간 뒤 소식이 끊겼다. 딸(57)마저 남편과 별거 중으로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27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살펴야 할 자녀마저도 이혼 등의 이유로 외면하는, 부양의무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3일 광주시 동구 등 5개 자치구에 따라

면 울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인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신청한 건수는 모두 1136건이다.

지난 2013년 896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2571건으로 전년보다 2.8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북구에서 열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도 모두 49건이 심의돼 48건(84명)이 통과됐다.

신청자 대부분은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이나 자녀들과 오랜 시간 연락 없이 지내는 노인들이다.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 복지법상 관계가 단절돼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자녀나 전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파악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세대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관계 단절로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들은 ‘언제 누구와 무슨 사유로 헤어진 뒤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와 지출 조사표, 1년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 복지 공무원은 “이런 과정이 당사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아픔을 들추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가족 해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정지역 광주도 AI 비상

광산구 축산농가서 첫 의심증세... 1만여마리 살처분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인 광주의 한 축산농가 오리가 AI 의심증세를 보여 광주시가 비상에 걸렸다.

광주시는 23일 광산구의 한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오리가 AI 의심 증세를 보여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I가 광주로 유입되기는 했지만 농가에서 자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살처분한 오리는 육용오리 9000마리와 청둥오리 1300마리 등 1만3000마리다.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AI 의심증세를 보였으며,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AI(H5형) 항원 양성반응이 나왔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정확한 검사 결과는 26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광주 북구와 전남 담양의 한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오리 판매업소가 폐쇄됐었으며, AI 항원 검출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전남 나주와 강진의 오리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카지노 투자 미끼 111명에 30억원 가로채

장성경찰청은 23일 해외카지노 사업투자자를 미끼로 노인과 가정주부 등으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챈 A(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대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아내와 직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시 북구 유동에 회사를 설립한 뒤 마카오 등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500%까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11명으로 30

억원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건넨 투자금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둘러먹기’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제로 없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인도 보석 채굴, 강화도 관광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유인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시민단체, ‘깜코 책임’ 강운태 전 시장 고발

羨 “무고·명예훼손 맞대응”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깜코’(GAMCO) 사업과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깜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와 참여자21·광주경실련·민변 광주·전남지부·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깜코 사업과 관련해 강 전 시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대표 김

모씨 등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강 전 시장이 기소되지 않아 책임이 있는지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 없다”고 여론을 남긴 점 등을 근거로 검찰에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시장직을 떠난 뒤에도 자숙의 의미로 침묵했지만 떠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시민위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황당한 절도범...공사장·철물점 등서 물건 훔쳐 집 리모델링



○“자신의 집 리모델링과 집안 장식에 필요한 물품 조달의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택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신지면의 외딴 언덕배기에서 동생과 살아온 박씨의 집에서는 4륜 오토바이 1대, 40인치 TV 2대, 시멘트 10포대, 드릴 등 1t 트럭을 가득 채울 정도의 장물이 나왔는데, 경찰에서 박씨는 “지난해 8월 가석방된 뒤 일정한 직업도 없이 변변찮은 생활을 해왔지만, 동생과 함께 짓고 있는 집만은 근사하게 꾸미고 싶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광주 첫 ‘금연 아파트’

진월동 삼익세라믹 3차... 입주민들 자율운영단 구성

“담배 연기 노(NO), 맑은 공기 마옵시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삼익세라믹 3차 아파트가 광주 최초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 절반 이상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에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또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 운영단도 구성했다. 금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입주민 스스로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것이다.

남구도 금연아파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남구는 삼익세라믹 3차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 현판과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연 보조제를 지원해 금연운동을 적극 돕기로 했다.

아파트단지 내 흡연 행위는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간접 흡연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가 하면 불쾌감을 유발, 이웃 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남구는 지난 6월부터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 아래 금연 아파트를 모집해왔다. 금연 아파트로 선정되면 거주세대의 50% 이상이 동의하고 자율 운영단을 구성해 금연 활동에 들어가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명 잇아간 산수동 주택 화재

23일 오전 10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집주인 A(여·49)씨가 주택 내부 옷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벼락’으로 변진 교회 신도간 갈등

목포서 30대 불 질러 4명 부상

수년째 신도들끼리 갈등을 빚던 목포의 한 교회에서 30대 신도가 불을 질러 4명이 다쳤다.

23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10분께 목포시 축후동의 한 교회 2층에서 이 교회 신자 조모(35)씨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조씨와 조씨를 말리던 다른 신도 3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미리 음료수통에 담아 온 휘발유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신도들이 소화기로 진화해 크게 번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교회는 수년 전부터 신도들이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회의 갈등은 지난 2012년 은퇴한 한 목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됐으며, 현재 상해와 재물손괴 등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만도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 상가 매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영산중고교,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보2천, 용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월수익 180만
(보3천,용2억5천) 실투자금액 →1억
매가 3억 7천

010-7384-7800 / 010-6670-9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영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점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점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9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6천만
-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면,모아A,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4천만
- 전남장성 시골주택 매매 장성읍 2분! 장성읍 8분! (토지 160평) → 매가 4천5백만

법률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19억
- 북구신용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백→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 (토3평,건13평) 감정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6천3백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토60평,건154평)감정가14억→최저가12억8천3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 통근들)

-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각화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22억3천
- 광산구 쌍암동 (정례식당)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 최저가 29억

모텔/주유소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1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 북구 두암동(주유소) (토204평,건114평) 감정가 11억9천→최저가 11억 9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경매컨설팅 교육

062-382-5500/010-6832-9700